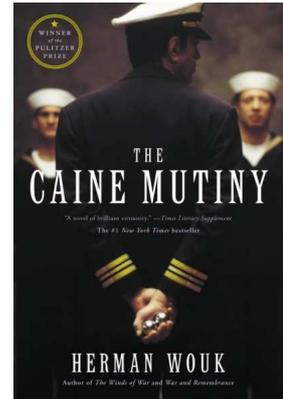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CAINE MUTINY
가제 : 케인 호의 반란
저자 : Herman Wouk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Back Bay Books
발행일: 1951년(초판)/1992년 4월 15일
분량 : 560 페이지
장르 : 소설/ 전쟁, 역사



- * **1954년** 플리처 상 수상작, 첫 출간 후 전 세계에 수백 만권 판매
- *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같은 해 개봉(**1954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후보, **1955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 **7개** 부문 후보로 선정)
- * **1960년대**에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TV** 영화로도 제작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세상,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단체생활, 한 집단이 한 몸처럼 결집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시되어야 할 때가 있다. 전쟁과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는 엄격히 나뉜 지위체계와 규율로 무장한 집단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제2차 대전 시기, 기뢰 제거의 임무가 주어진 낡고 작은 해군함에 갓 배정된 젊은 해군 소위의 눈으로 바라본 이 두 가지 가치의 갈등은 빠져나갈 곳이 없는 태평양 바다 한복판이라는 매우 한정된 공간 속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진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 겉으로 보기에 규율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이유, 즉 집단적인 목표 달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길로 자꾸만 새고 마는 권력의 모순과 허술함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은 1951년에 첫 출간된 후 수백만 권이 판매되고 영화, 드라마, 브로드웨이 연극으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미성숙한 젊은이의 성장기이자 전쟁 상황에서 대립하는 도덕적 가치와 그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을 그린 심리 드라마인 동시에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는 흥미로운 법정 공방까지 재미 있는 요소가 가득한 명작이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부유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윌리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첫 출항을 준비한다. 으리으리한 전함에 배정 받기를 바랐지만 그가 가게 된 곳은 소해정 케인 호. 어뢰 제거가 주 임무인데 여태 한 번도 어뢰를 제거해 본 적이

없다는 이 낡은 배 안에는 전쟁과 오랜 항해에 지친 대원들이 가득하다. 사실 월리는 배에 오르기 전까지 전쟁과는 영 거리가 만 삶을 살았다. 늘 파티를 즐기고, 나이트클럽 가수인 여자친구 메이와 연애하며 희희낙락 시간을 보내던 그는 배 위에서 마주친 현실에 여러모로 충격을 받는다. 마침 새 함장이 부임하고, 해군 함정이지만 규칙에 별로 엄격하지 않았던 전임 함장과 달리 새로운 퀵 함장은 복장이나 청소 등 생활 전반에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축 늘어져 있던 대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이전의 허술한 조직이 어쩐지 맘에 들지 않았던 월리는 퀵 함장의 새로운 관리 방식이 사뭇 마음에 들지만, 퀵의 행동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셔츠가 빠죽 나와 있는 대원을 호되게 꾸중하느라 배는 가야 할 항로를 이탈하고만 것이다. 대원들은 연신 쇠구슬을 손 안에서 문질러대는 퀵 함장이 정신적으로 강박증세에 시달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부함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가 매일 보여주는 괴상한 행동을 일지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항로 이탈 문제로 문책을 받은 뒤 다시 출항한 케인 호. 하지만 퀵 함장의 이상 행동은 계속된다. 다 함께 영화 보는 시간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간 영화 상영을 아예 중단시키고, 식당에서 딸기가 사라지자 새벽에 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누군가 식료품실 열쇠를 복사해서 몰래 훔쳐먹는 것 같다며 여분의 열쇠를 찾겠다며 샅샅이 수색을 벌인다. 급기야 바다에 태풍이 몰아친 날, 제대로 된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대는 함장을 보다 못한 부함장은 다른 대원들과 합심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칫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반란에 승리한 대원들은 자신들이 큰 일을 해냈다며 자축하지만, 군사법정에 회부된 케인 호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게 된다.

퀵 선장의 유난스러운 강박 증상으로 표현된, 철저히 계획된 안정적인 질서를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 답답한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의 대립은 과연 정말 불안한 건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던 사회 구성원들의 잘잘못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허먼 위욱(Herman Wouk)은 풀리처 상을 수상한 대표작 『케인 호의 반란』을 비롯해 영화로 제작된 『MARJORIE MORNINGSTAR』, TV 시리즈로 만들어져 에미 상을 수상한 2부작 소설 『THE WINDS OF WAR』, 『WAR AND REMEMBRANCE』 등을 썼다. 1915년생으로 현재 10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STAR OF THE NORTH

가제 : 북쪽의 별

저자 : David John

출판사: Harvill- Secker (Penguin Random House UK)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 스릴러

*** 영국, 독일 *pre-empt* 계약 체결**

***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오른 탈북 여성의 이야기 「THE GIRL WITH SEVEN NAMES」 작가가 북한을 배경으로 쓴 두 번째 스릴러**

1998년 여름, 동글동글 작은 색색의 돌들이 가득한 백령도 콩돌 해변에서 두 남녀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대학교 1학년생인 진화,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유학 온 수민은 인적 없는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바다를 바라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진화가 나무 장작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는 사이, 수민은 고무잡잡한 진화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오징어를 구워 먹고 진화가 가져온 기타로 파도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던 그때, 바다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진화가 기타를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수민은 의아해하며 그의 시선이 쏘인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잔잔한 파도와 맞닿은 해변과 100미터 가량 떨어진 바다에 새하얀 거품이 일고 물살이 솟구치고 있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두 눈을 멀게 만드는 강렬한 주황색 조명이 두 사람에게 떨어졌다. 수민과 진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며칠 간 백령도 일대를 수색한 인천 경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민과 진화가 백령도로 들어간 후 백령도에서 외부로 나온 여객선 중 어느 곳에도 두 사람이 탑승한 기록이 없다는 점, 북한과 가까운 지역 특성상 지정된 여객선과 선박 외에는 배가 운항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주민이 콩돌 해변에 고스란히 남아 있던 두 사람의 소지품을 발견한 점으로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된 점, 그리고 며칠간 이어진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익사로 결론 지은 이유였다. 결국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수색은 종료되고, 두 젊은 청춘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2010년, 수민의 쌍둥이 언니인 제나는 여전히 수민을 잊지 못한 채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능한 학자로 살아가는 그녀는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한국 경찰의 결론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한 것 한 가지, CIA가 제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일상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제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학자인 여성에게 왜 중앙정보부가 관심을 보일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한편, 북한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중국과 접한 양강도에서 한 60대 여성이 특별한 장사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 해외 원조단체가 날려보낸 거대한 풍선이 밭에 떨어지면 그 속에 담긴 온갖 물품을 모두 주워다가 근처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음식과 신기한 물건들은 인기 만점이었고 곧 장사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가난과 먹을 것이 부족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고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하나 둘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저 물건 파는 장사꾼이던 여성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같은 시기, 북한 고위급 외교관인 조상호에게도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다. 형이 내각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로 승진할 기회를 얻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자리를 내어줄 리는 없었다. 예상대로 최고지도자 직속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두 형제의 집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라도 흠이 발견될 경우 형이 꿈꾸던 그 자리는 그대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한 두 사람이 힘겹게 쌓아온 경력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부모였다. 아기일 때 버려진 두 형제를 키워준 북한의 유력한 명문집안 양부모가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부모. 그들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사실로 드러나고, 조상호와 아내, 아들까지 거대한 위협에 휩싸인다.

10여 년 전 사라진 두 남녀, 고통 받는 인민의 대변인이 된 60대 여성,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가족의 과거사로 인해 위기에 처한 고위급 외교관, 이들의 운명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절정으로 치닫는다. 북한을 다녀온 서구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의 풍경,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절망적인 실상, 그리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이 영키며 흡입력을 발휘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존(David John)은 북한을 여행해본 몇 안 되는 서구인 중 한 명이다.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전작 『THE GIRL WITH SEVEN NAMES』 (HarperCollins, 2015)는 뉴욕타임스 전자책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 밖에도 역사 스릴러 『FLIGHT FROM BERLIN』 (HarperCollins US, 2012)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LIFE TO COME

가제 : 다가올 인생

저자 : Michelle de Kretser

출판사: Allen & Unwin(UK)/ Catapult (US)

발행일: 2018년 1월

분량 : -

장르 : 소설/ 문학



- * 마일스 프랭클린 문학상 수상작인 「**QUESTIONS OF TRAVEL**」, 맨부커 상 후보에 오른 「**THE LOST DOG**」 작가의 신작
- * “발표하는 소설마다 이 시대 가장 날카로운 지성을 담아내는 작가” – 「인디펜던트」
- *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정의 특성을 깊이 있게 조명한 소설

조지와 피파의 인연은 시드니에서 강변의 어둡한 주택에 혼자 살던 먼 친척 어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나이든 친척이 더 이상 집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조지의 엄마가 관리를 맡게 되었고 혼자 지내는 아들에게 그 역할을 다시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늦봄의 어느 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가 혼자 쓰기에는 상당히 널찍한 벽돌집은 조지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 어머니가 ‘중세풍’이라고 표현했던 대로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만큼 별이 잘 들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거의 마칠 때까지 멜버른에서 살아온 조지에게 시드니는 여전히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곳이었다. ‘호주 문학에 담긴 모더니즘’을 하필 박사 학위 주제로 정한 바람에, 영문학자는 많지만 호주 문학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학계에서 지도교수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지라 어쩔 수 없이 겨우 찾아낸 교수가 있는 곳, 시드니로 온 것이다. 하지만 벌써 4년째, 논문은 자꾸만 산으로 가고 이래저래 기운이 빠진 조지는 일주일에 몇 차례 시범수업을 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파는 시드니 대학으로 옮기고 2년째 되던 해, ‘허구의 자아’라는 주제로 열었던 시범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이었다.

학점이 달린 최종 과제에서 내용보다도 너무 과하게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 조지가 너무 안쓰러워 ‘패스’ 도장을 찍어준 학생, 피파는 유학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 카트리나의 집에 얹혀 살았다. 그 집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받은 조지는 카트리나 부모님 소유의 집을 곧 비워야 하는 상황이고, 워낙 부자라 집이 여러 채인 카트리나의 부모님이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다시 구해줄 수는 있지만 몇 달 뒤에나 나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리하여 철저히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로 하고, 조지는 자신도 열걸에 살게 된 사촌의 강변 주택에 한동안 피파가 와서 지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둘은 아침이면 베지마이트 바른 빵을 발코니에서 나눠 먹는 동거인이 되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形形色색 옷과 액세서리를 즐겨 입는 전형적인 시드니의 여성인

피파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완벽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마음과 유학을 다녀와서 문학가로 큰 성공을 하고픈 욕망을 모두 이루려고 애쓴다. 한편 피파의 친구, 캐시는 학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스리랑카 출신의 남자, 애쉬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피파는 “만약 내 침실에 저런 남자가 나타난다면 나는 욕조에서 잠을 청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캐시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데 애쉬에게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이 스리랑카 출신이라는 점, 그곳에서 주변 호주 토박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는 그 ‘차원이 다른’ 기억이 사실은 완전히 지워버리고만 싶은, 끔찍한 비극이라는 사실은 절대 입밖에 내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고픈 대로 자신을 평가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가 만들어가는 이미지의 한 부분이었다.

피파와 조지, 그리고 애쉬, 캐시와 더불어 소설에는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번역가로 일하는 셀레스테도 등장한다. 번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일에는 영어 강사로 뛰고 금요일 밤부터 주말에나 사실 자신은 별 관심도 없는 유럽 문학을 번역하는 것이 셀레스테의 일이었다. 고된 일상만큼 셀레스테를 괴롭히는 건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 느껴버린 애뜻한 감정이었다. 소설은 각자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 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현재 모습과 현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과거의 모습, 기억을 차츰 보여주면서 이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예측하게끔 독자들을 이끈다. 과거와 참 많이 다른 이들의 현재는 내적 자아와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이미지의 대립과 절충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진짜 자아가 왜곡되고, 외면당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계급, 인종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스스로 택한 변화와 마지 못해 떠밀린 변화의 차이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소설은 이 다섯 명의 등장인물 각자가 구축한 독특한 세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인생에 속속들이 배어 있는 외로움과 왜곡된 인식을 유쾌하게 풍자한다.

<저자 소개>

미셸 드 크레처(Michelle de Kretser)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열네 살에 호주로 이민을 와서 호주, 파리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여행 가이드서 『론리 플래닛』 편집자로 일하다가 소설가가 되어 두 번째로 쓴 소설 『THE HAMILTON CASE』로 호주, 영국에서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했다. 세 번째 소설 『THE LOST DOG』은 2008년 맨부커 상 후보에 올랐다. 최근작인 『QUESTIONS OF TRAVEL』로 마일스 프랭클린 문학상(Miles Franklin award)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문학상(NSW Premier's Literary Awards), 호주 총리 문학상(Prime Minister's Literary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HALSEY STREET

가제 : 할시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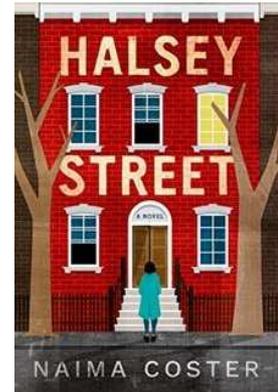
저자 : Naima Coster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분량 : -

장르 : 소설/ 여성 소설



*** 뉴욕 브룩클린, 젠트리피케이션이 한창인 마을에서 다시 만난 가족들, 과거와 현재 그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잊혀진 시간과 기억들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

또 한 건의 추락사고. 페넬로페는 1년 전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의사 친구에게서 낙상 사고 소식을 들은 이후로 모르는 번호가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두 부녀에게 세상에 의지할 가족이라곤 서로밖에 없는데, 그리고 집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먹고 사느라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데 사고라니.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손가락과 손목,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엉덩이에 큰 멍이 든데다 가벼운 뇌진탕 증세까지 발생한 아버지는 주변 이웃들의 간호를 받으며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그런데 딱 1년쯤 지난 어느 날, 하필이면 페넬로페가 바에서 우연히 만난 조각 전공생과 정신 없이 술을 마시고 기절한 날 새벽에 또 아버지가 넘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예술 공부를 하겠다고 5년째 살고 있는 피츠버그와 너무 먼 고향집, 브루클린 베드퍼드스타이브센트로 마침내 돌아갈 때가 됐다.

대도시로 온 것까지는 좋았다. 가끔 딸의 얼굴을 보러 찾아온 아버지도 페넬로페의 새로운 터전이 펍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하인즈 필드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야구경기를 실컷 즐길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를 잡아들일 형편은 안 되지만, 두 사람은 며칠 차를 빌려 앨러게니 강변이며 머논가힐라 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겼다.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한 채 워싱턴 산까지,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에 가족이라곤 둘 밖에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 미렐라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 같은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것이 부녀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한때 페넬로페는 피츠버그 시내의 여러 공립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대체교사로 일했지만 수료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고 간혹 자리가 난다 해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매년 여름마다 강변에서 벌어지는 예술 축제와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 갤러리들, 그런 것들은 늘 페넬로페가 꿈꾸던 환경이었지만 잘 나가는 예술가가 되기엔 감당해야 할 생계도, 늘지 않는 그림 실력도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멀리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비싼 학비를 내고 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한다지만 페넬로페에게 그림은 일부러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 연료와도 같았다. 하지만 아마추어도 아니지만 전문가도 아닌 페넬로페의 실력은 제자리걸음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어쩌면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 뭉개고 살던 페넬로페의 삶은 아버지의 두 번째 사고 소식으로 큰 전환점을 맞는다. 첫 사고 때 일 때문에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던 죄책감에 늘 괴로웠던 페넬로페는 예술가로 꼭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우던 피츠버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브루클린도 고향집이 있는 마을도 더 이상 페넬로페가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흥흥한 분위기를 물씬 내뿜던 마을의 오래된 낡은 건물들은 싹 치워지고 일면식도 없는 낯선 부유층들이 베드퍼드 스타이브샌트 곳곳을 사들여 자신들의 고귀한 생활 수준에 맞는 집과 정원을 들여 놓았다. 땅 흘러 일하는 사람들, 흑인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지던 마을이 이제는 돈 많은 백인 중산층의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변모하여 페넬로페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새로운 미래를 꿈꿨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안고 돌아온 고향에서, 페넬로페는 과거를 추억할 기회를 박탈당한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페넬로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생긴다. 남편도 딸도 버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고향인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떠나버린 사람, 엄마라는 존재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엄마는 페넬로페에게 엽서를 보내, 다시 한 가족으로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겨우 누르고 봉합해두었던 상처가 다시 찢긴 듯한 고통을 느끼는 페넬로페에게 상상치도 못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소설은 참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여성, 페넬로페와 그녀의 엄마 미렐라의 삶을 세밀하게 조명하며 과거의 기억, 삶이 개개인에게 얼마나 크고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페넬로페, 그리고 영영 놓쳐버린 딸의 손을 다시 잡고 싶어하는 미렐라, 두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과 상실, 회복, 자신이 속할 장소와 사람들을 늘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포착한 데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나이마 코스터(Naima Coster)는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흑인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소설 글쓰기, 포드햄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글쓰기 석사 과정을 마쳤다. 「뉴욕타임스」, 「게르니카(Guernica)」, 「아트 앤 레터스(Arts & Letters)」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고 수 차례 상을 수상했다. 잠재력이 많은 미성년자들을 도와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 'Prep for Prep'에 참여해 왔다.

Michael Poore's ***REINCARNATION BLUES***— and it's a STARRED review from Kirkus!

REINCARNATION BLUES is continuing to make a splash on the publicity run-up – it's just gotten a second STARRED review, this time from Booklist!

The oldest soul on planet Earth is given five last chances to get life right.

Poore (*Up Jumps the Devil*, 2012) offered a metaphysical love story in his debut and here places another timeless romance inside a wildly ambitious comedy of errors. In Poore's universe, people die—but they don't end. They're resurrected over and over again as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eras of time and space. Our hero is Milo, a guy (and sometimes a girl and occasionally a cricket) who has had 9,995 chances to reach "perfection," after which he gets to go through the Sun Door and merge with the "Oversoul." This is all explained to him by two cosmic busybodies named Mama and Nan who are endlessly pestering Milo to do better. "Every life has something to teach you," they explain. "Chances for you to learn and grow and eventually become perfect." But Milo is running out of time. If he doesn't reach his goal by his 10,000th life, Mama and Nan are going to boot him off the Universal Sidewalk and he'll pass into oblivion. "Your soul will be canceled like a dumb TV show," Nan says. Compounding Milo's problem is his long-standing romance with his girlfriend, the living embodiment of Death, who prefers to be called "Suzie." "'Love' and 'in love' aren't always the same thing," Suzie explains. "'In love' is a human thing. Chemicals. 'Love' is cosmic. I love you, too." So in addition to experiencing Milo's five last lives, from dying in a comet blast to being shipwrecked on a far-off planet, we also get hilarious and often touching flashbacks to all his weird, wonderful lives. Poore is also, like Christopher Moore, a master at lines so funny and startling they inspire spit-takes: "Remember that time you fucked it up so bad you had to come back as a bug?" Suzie asks.

Tales of gods and men akin to Neil Gaiman's *Sandman* as penned by a kindred spirit of Douglas Adams.

제목 : REINCARNATION BLUES
가제 : 1만 번의 환생
저자 : Michael Poore
출판사: Del Rey Books/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가을
분량 : 442 페이지
장르 : 소설



스페인 *Malpaso*, 터키 *Domingo*, 이탈리아 *Edizioni* 와 10일 안에 판권 계약 완료!

9995번 환생한 남자와 함께 찾는 인생의 의미

마일로의 9,995번째 삶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충성스러운 개와 함께 사는 50대 남자의 인생이었다. 해뜨기 전에 잠이 깨면 해변으로 어기적어기적 나가 푸르른 바다를 보며 아침밥으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보드라운 모래사장에 쓰러져 다시 잠이 들곤 했다. 폭 자고 일어나 항구 쪽으로 가면 제법 맛있는 낚시 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날그날 내키는 대로, 마일로는 두 가지 직업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했다. 하나는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서 잡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낚아 오는 어부의 일이고 또 다른 직업은 낚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후에 몇 시간 동안 바다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투어 가이드다. 9,995번째로 부활해서 이렇게 살던 삶이 끝이 난 그 날, 마일로는 혼자 조용히 낚시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광객 티가 팍팍 나는 남자가 다가왔다. 오늘 투어는 곤란하다는 마일로의 완곡한 거절에도 카펫 파는 일을 한다는 그 남자는 한사코 배를 타고 싶어 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태우고 마일로는 먼 바다로 나아갔다. 사실 마일로의 배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정말로 낚시 투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바로 인생 상담이다. 그 동안 마일로는 1만 번 가까이 부활하며 다양한 생을 살다 보니 삶의 지혜가 쌓일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고민을 꺼내 놓든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먼 거리도 마다 않고 플로리다까지 내려와 그의 낚시 배에 몸을 실었다. 이 날도 카펫 파는 남자는 마일로와 나란히 낚시 대 앞에 앉아 불행한 결혼생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고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해결책을 얻었다. 이 상담을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마일로는 밤 수영을 나갔다가 상어에게 잡아 먹혀 9,995번째 죽음을 맞았다.

영혼의 완성, 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진짜 목표는? 사랑의 의미를 찾기 위한 5번의 기회

마일로는 슬한 죽음을 맞으면서도 눈 깜짝할 새 숨을 거두는, 아주 운 좋은 죽음은 딱 한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즉사했을 때로, 마일로는 사후세계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고 물어보아야 했다. 1만 번에 가까운 죽음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찾아왔다. 비슷한 상황도 없었다. 언제 죽을 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다

섯 번 정도로, 처형을 당해 죽었을 때였다. 스페인에서 화형을 당했을 때, 중국에서 단두대에 올랐을 때, 수단에서 밧줄에 목을 매는 형벌을 받았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야 했을 때... 하지만 미리 알건 모르건, 죽음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숨이 끊어지면, 살아 생전과 똑같은 모습을 한 영혼이 어느 강가에서 깨어난다. 이번에도 강가에서 정신이 든 마일로의 영혼 곁에 까만 머리를 늘어뜨린 ‘데스’가 다리를 양전히 포개고 앉아 있었다. 9,995번째 죽음, 상어에 잡아 먹힌 그 경험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서 깨어난 후에도 느낌이 생생했다. 데스라는 본명보다 수지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후세계의 안내자와는 죽어야 만날 수 있다. 만 번 가까이 부활하는 동안, 마일로도 초창기에는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보려는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활이 지겨워지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능한 모든 삶을 다 살아보리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에, 상어에 먹혀서 죽은 마일로는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부활의 기회가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이제 남은 기회는 단 5회뿐이라는 사실이었다. 1만 번 부활할 때까지 완벽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하고 만다. 이제 남은 기회를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음을 깨달은 마일로는 데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

수없이 부활하는 남자, 마일로의 인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대 인도부터 세계 곳곳의 식민지, 우주에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미래 사회에서도 펼쳐진다. 때로는 선한 사람으로, 때로는 더 없이 못된 악당으로 살다가 메뚜기, 나무로 태어나기도 하는 각양각색 다채로운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지 고민하고, 주어진 생에서 인간이 진정 성취해야 하는 것과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서서히 배워간다.

<저자 소개>

마이클 푸어(Michael Poore)는 2009년 「Southern Review」, 「Carolina Quarterly」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2009년에는 “Blood Dauber”라는 제목의 글로 스테이전 상(Sturgeon Award) 후보에 올랐고 2011년에는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 후보로 선정됐다. 2012년 데뷔 소설로 『Up Jumps the Devil』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NON- FICTION

제목 : GREAT MYTHS OF EDUCATION AND LEARNING

가제 : 교육과 학습에 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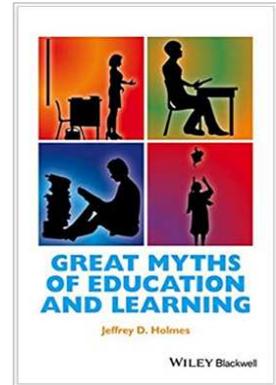
저자 : Jeffrey D. Holmes

출판사 Wiley- Blackwell

발행일: 2016년 5월 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교육



- * “교육계에 계속 맴도는 미심쩍은 주장을 매우 생생하게, 탄탄한 근거를 토대로 세밀하게 분석한 책. 재미와 깨우침을 안겨준다.” –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할 패슬러
- * “근거 없는 각종 소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교수법을 선택할 때 흔한 상식에 의존할 경우 어떤 허점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 교육 심리학자 리처드 E 마이어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 수업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발표를 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학습 수진이 향상될까? 보상은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학생들의 내재적 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소일까? 인간의 행동은 흑백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학습과 교육은 서로 겹쳐지고 상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셀 수 없이 많아서 두 분야로 나누어 각각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럼에도 학습과 교육이 별개로 다루어진 각종 연구와 분석에서 잘못 도출된 오해나 근거 없는 주장이 두 분야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인정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자는 학생들의 학습 특성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견해, 교수법을 둘러싼 논란과 학습 성과에 관한 평가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를 골라 각 장마다 반박한다. 인간의 학습 방법,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하는 방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과 교육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허술한 주장들은 알아서 잊혀지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오랜 세월 끈질기게 남아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정반대되는 근거가 아무리 많이 제기되어도 확정적인 주장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하도 많이 알려져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면 틀린 개념도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저자는 교육 분야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잔류하며 중요한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오해를 각 장의 주제로 삼아 모순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사람을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사람의 뇌 기능을 연구하는 신경학자들 가운데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토대로 덜 발달된 뇌 반구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법을 만

들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설명해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정량화하는 정신계측학 분야의 학자들은 표준화된 시험이나 검사로 학습 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저자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 자체가 결코 확정적일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학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그와 정반대인 주제를 엄선하여 분석한 결과는 심리학과 교육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교육자, 심리학자의 보다 정확한 결과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교육학,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을 비롯해 학습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학생들은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
2.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교수법이 일치할 때 능률이 오른다
3. 강의는 다른 교수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
4. 교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학습 능력이 개선된다
5. 전통적인 직접 교수법에서는 교사의 지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강조한다
6. 보상은 아이들의 본능적인 학습의욕을 떨어뜨린다
7. 멀티태스킹은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8. 사람들은 좌뇌형, 우뇌형 중 어느 한쪽에 해당된다
9. 지능을 좌우하는 개별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10. 자존감은 학업 성적을 높이는 요소이다

(이하 생략, 16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제프리 D. 홀스(Jeffrey D. Holmes)는 이타카 칼리지의 심리학과 부교수로 일반 심리학과 각종 검사법, 평가법, 연구방법, 그리고 논란이 되는 심리학적 쟁점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Social Psychology: Student Handbook to Psychology』(2012)가 있다.

제목 : THE SMELL OF FRESH RAIN

가제 : 상쾌한 비 냄새

(부제: 표현하기 가장 힘든 감각, 후각이 주는 뜻밖의 즐거움)

저자 : Barney Shaw

출판사: Icon Books Ltd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과학(생물학)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수한 향기 혹은 냄새, 우리의 후각이 자극 받는 생물학적 과정과 심리학적 영향, 냄새의 역사를 추적한 교양 과학서**

*** 200가지 식품, 물건 등의 일반적인 냄새를 간결하게 묘사한 '냄새 사전' 제공**

바른 지 얼마 안 된 페인트 냄새는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데, 이 냄새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글지글 구워지는 베이컨 냄새는? 새벽 다섯 시 상쾌한 공기의 냄새는? 우리 생활에서 코로 전해지는 자극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감정, 기억의 연계성에 깊은 호기심을 느낀 저자는 이 책에서 후각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에 돌입했다. 생물학적인 후각의 특징과 우리가 뇌로 어떤 냄새를 인지하기까지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신체의 기능적인 과정과 함께 냄새가 즉각적으로 촉발시키는 심리적인 반응,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냄새의 기능과 후각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냄새와 후각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가 가득하다.

심리학에서는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혀 끝을 맴돌기만 할 뿐 말로 나오지 않는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냄새를 분명히 맡았는데 어떤 냄새인지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에도 주목한다. 유명한 문학가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갑갑한 심정을 시원하고 절묘하게 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온갖 냄새를 느끼기만 하고 표현하지는 못한 채 지나간다. 냄새와 후각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노래 가사에도 헤어진 연인의 향기에 관한 묘사가 수시로 등장하듯, 특정한 냄새는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억,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특히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감각을 일깨우는 냄새는 너무 친숙해서 놀라게 만들고, 예전에 맡았던 것과 너무 달라진 낯선 변화에 놀라게 하기도 한다. 냄새와 후각의 빼 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은 '오감을 자극하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는 기분 좋은 자극 중 하나라는 점이다. 갓 구운 빵 냄새, 지글지글 타오르는 숯불에서 고기가 익는 냄새와 같은 음식은 물론 깨끗하게 세탁되어 햇볕에 잘 말려진 침구, 다려진 옷에서 나는 깨끗하고 청결한 냄새는 삶의 큰 즐거움을 차지한다. 아기의 보송보송한 살 냄새, 가을 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의 연기 등 이런 기분 좋은 냄새는 끝도 없다. 저자는 이러한 후각의 특징에 주목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보다 특정한 냄새가 훨씬 더 빨리 정서적 변화와 날카로운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 나섰다. 냄새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나선 저자는 냄새에 관한 화학, 심리, 역사적 사실을 샅샅이 뒤져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문장으로 들려준다. 조선소, 향수 가게, 그리고 냄새가 소환한 무수한 기억의 절편을 다양하게 누빈 탐구 과정을 통해, 저자는 세상을 향해 코를 활짝 열고 살아가는 공간,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후각을 통해 세상을 얼마나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책 뒷부분에 수록된 200가지 냄새 사전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각종 냄새를 글로 풀어본 흥미로운 시도이자 특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 1장. 상쾌한 비 냄새
 - 2장. 바닷바람에 담긴 짠 내음
 - 3장. 금속, 그리고 커피
 - 4장. 숲가마
 - 5장. 냄새의 의미
 - 6장. 익숙함을 느끼는 감각
 - 7장. 마들렌
 - 8장. 잘못 짚은 냄새
 - 9장. 반으로 자른 비터레몬, 그리고 감자칩 네 봉지
 - 10장. 위대한 약취
- (이하 생략, 16장과 맺음말, '200가지 냄새'로 구성)

<저자 소개>

바니 쇼(Barney Shaw)는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여러 장관의 보좌관을 지내고 노동, 실업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THE REDUCETARIAN SOLUTION

가제: 고기 덜 먹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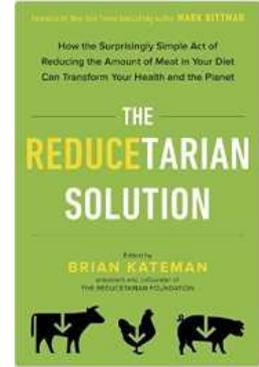
저자: Brian Kateman

출판사: TarcherPerigee

발행일: 2017년 4월 18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에세이(건강, 환경)



- * “이 책은 자연과 지속가능성, 인간을 더 많이 생각한 정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디팍 초프라
- * “동물 인권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고통 받는 축산 동물을 구하고,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보여준 책이다.” – 노암 촘스키
- *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는 책. 여기서 ‘모두’란 우리 자신과 아이들, 고통 받는 무수한 동물들을 의미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Quiet: The Power of Introverts in a World That Can't Stop Talking*」의 저자 수전 케인

최근 들어 채식주의자들이 부쩍 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채식이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가에 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각종 고발 프로그램이나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 거대한 농장에서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산업에서 동물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도 여러 차례 드러났고, 환경적으로도 온실가스 발생량에 축산업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다. 결국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몸에도 썩 좋지 않고 동물과 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도 채식주의자가 늘어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여태 유지해온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 와중에도 과도한 식육섭취의 각종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고기를 아예 끊지는 않되 ‘줄이는’ 것이다.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거나,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는 고기를 절대 안 먹는 식의 노력이 그렇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기를 덜 먹는 것이 건강에도, 자연에도, 동물들에게도 모두 이롭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사람들이 서서히 늘면서 이와 같은 ‘반 채식주의자’들도 늘어가는 추세지만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혼자 힘겹게 애쓰다 쉬이 포기하거나 웬지 애매한 입장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이 훌륭한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전적인 육식주의자도, 채식주의자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깨닫고, 2014년 ‘절육(節肉) 재단’을 설립했다. 이 책은 고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운동을 벌이는 이 단체의 목표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밝힌 짤막한 에세이 70여 편을 모은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술가와 학자, 교육자, 방송인, 코미디언 등이 참여했다.

한 사람이 지금 먹는 고기량의 10 퍼센트 정도만 줄여도 자신은 물론 동물, 지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에세이는 고기를 덜 먹을 때 몸과 마음, 지구에 나타나는 영향에 따라 세 부분으로 분류된다. 책 뒷부분에는 베스트셀러 요리책 저자 팻 크로커 (Pat Crocker)가 소개하는 채식주의자, 절육주의자를 위한 레시피가 40건 이상 담겨 있다.

점심 때 고기를 먹었으면 저녁 때는 참는 것, 달걀 오믈렛을 가끔은 두부 스크램블로 대체하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절육주의 실천법과 함께 여러 저자들이 제시하는 기발하고 놀라운 생활 속 고기 덜 먹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서문/머리말

몸

- 그 사람은 고기 덜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걸
- 놀라움을 만드는 요소
- 이 세상 내가 사는 곳은 조금 덜 외롭게
- 야만주의는 자연에도 존재한다
- 어디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
- 속았어! (이하 생략, 총 29편)

마음

- 우리는 얼마만큼 먹도록 만들어졌을까
- 몸에 귀를 기울여라
- 우리는 몸 속 미생물이 먹는 것에 좌우된다
- 더 먹으려고 안달 난 아이들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법
- 정치권과 미국 영양 산업의 '고기 로비' (이하 생략, 총 22편)

지구

-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주의자 되기,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 고기는 귀중한 음식이다
- 고기를 조금만 덜 먹으면 지구의 빈곤이 사라진다
-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친다면 (이하 생략, 총 24편)

레시피

<저자 소개>

브라이언 케이트먼(Brian Kateman)은 고기 소비량을 줄이자는 목표로 설립한 비영리단체 '리듀스스테리언 재단(Reducetarian Foundation)'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이다. TEDx 강연에 참여했으며 「허핑턴 포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LA 타임스」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하고 소개됐다. 콜롬비아 대학교 '환경지속성 지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제목 : HEALING CHILDREN

가제 : 아이들을 위한 치료

(부제: 소아의학의 제일선에 선 의사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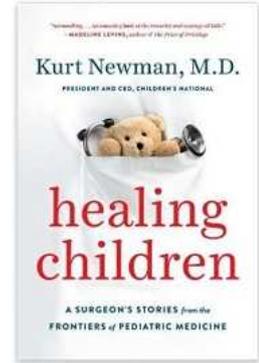
저자 : Kurt Newm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의학/회고록



- * “‘아동 전문’ 치료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울림을 주는 책. 여러 멘토와 치료, 사례연구, 그리고 저자가 무한한 경외심을 느낀 아이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관한 세밀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다.” – 「워싱턴 포스트」
- * “미국의 일류 소아과 의사들 중 한 명이 쓴 이 깨우침과 지혜가 담긴 책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 「피플(People)」, ‘베스트 신작 12권’ 선정 이유
- * “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다. 건강의 놀라움과 미스터리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픈 사람들이 읽어봐야 할 책.” –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의 저자 월터 아이작슨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리라. 아이들의 몸은 어른의 몸보다 회복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적응력도 뛰어나며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도 더욱 잘 견딘다. 이런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아동 치료는 부가적인 영역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이들을 함께 맡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술실에서 나이든 환자들의 마취를 도맡던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취를 받아야 하는 유아에게 가장 알맞은 마취법을 과연 잘 알고 있을까? 축구에 폭 빠진 어린 딸이 훈련하다 뇌진탕을 일으켰다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직행해야 할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까? 미국의 일류 아동병원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국립 어린이 메디컬 센터’ 대표이자 수십 년간 소아의 올바른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알려진 저자는 그 동안 자신이 만난 어린 환자들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을 사실들을 종합한 이 책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어른의 미니어처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소아의학의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한다.

저자는 소아과를 전공하기로 결심했던 1980년대에 이 분야의 환자는 대부분 영유아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구비나 투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소아과 의사들의 입지와 자긍심은 상당히 낮았다고 설명한다.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소아의학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자기 아이가 아플 때 어떤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간 축적된 무수한 정보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의료계가 활용하지도,

반영하지도 못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책 1부에서는 저자가 성인 중심의 치료가 팽배한 의학계에서 소아의학에 폭 빠지게 된 배경과 아이들의 특별한 치유력을 깨달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저자가 멘토에게서 배운 진정한 아동 치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고, 마지막 3부에서는 소아의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개척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환자들과 의료계 동료들의 노력을 설명한다.

미처 몰랐던 소아의학의 이면과 기적에 가까운 아이들의 놀라운 치유력에 관한 인상적인 이야기와 함께 답답한 의료계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한 유익하고 감동적인 에세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것들

1. 다리를 건너
2. 연민을 배우다
3. 나올 수 있게끔 태어난 존재들
4. 실수
5. 멘토를 찾아서
6. 수석 코치와 팀
7. 절대 기록을 믿지 마라
8. 가르칠 수 있다면
9. 개구리가 어디까지 점프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단언할 수 없다
10. 아기 안는 법
11. “이해대립 같은 건 없습니다.”

2부. 결정적인 교훈 (12- 18장)

3부. 새로운 한계를 넘어 (19- 28장)

맺음말. 자기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된 사람

<저자 소개>

커트 뉴먼(Kurt Newman)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소아병원으로 알려진 워싱턴 ‘국립 어린이 메디컬센터’의 대표 겸 CEO를 맡고 있다. 30년 이상 해당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일했으며, 현재 조지워싱턴 의과대학의 외과, 소아과 교수이기도 하다.

제목 : ALIGNED TO ACHIEVE

가제 : 균형이 맞아야 성공한다

(부제: 영업과 마케팅을 단일한 성장 동력으로 결집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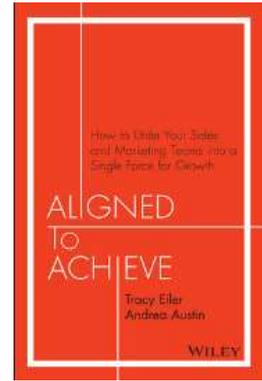
저자 : Tracy Eiler, Andrea Austi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9월 26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영업, 마케팅)



- * **“B2B 분야에서 최고의 영업, 마케팅 전문가로 꼽히는 두 사람이 검증된 전략과 실용적인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 영업 효율과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전 분야의 사업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 하인즈 마케팅(**Heinz Marketing**) 대표, 매트 하인즈
- * **“두 저자가 실시한 사실 중심의 조사를 통해 영업과 마케팅의 균형을 ‘왜’ 맞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준다.”** - 『**The New Handshake: Sales Meets Social Media**』의 저자 바바라 기아만코

회사마다 영업 부서와 마케팅 부서는 실적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거나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할 때 서로의 탓을 하기 바쁘다. 영업을 맡은 쪽에서는 마케팅 쪽에서 만들어낸 홍보물 등 각종 콘텐츠가 현장에서 별로 먹히지도 않고 특정 타겟이나 상황,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마케팅 부서에서는 기껏 빠듯한 일정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어냈더니 영업 팀은 그 수고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실적인 안 나온다고 공격한다고 한탄한다. 제대로 된 마케팅 콘텐츠가 나오려면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 영업과 마케팅이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나타난 특징이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로 인한 타격은 점점 커져만 가고, 회사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B2B(기업 간 거래) 영업,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온 두 여성 전문가는 자신들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1,0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두 분야의 균형을 바로 잡아 한층 더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보는 건 영업이나 마케팅이 아닌 ‘브랜드’다. 두 저자는 영업과 마케팅이 하나의 팀으로 결집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브랜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회사 성장과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두 팀이 같은 회사 안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가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는 건 시장에서 치열하게 벌여야 할 경쟁을 조직 내에서 쓸데없이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특성이 자고 일어나면 바뀔 만큼 빠르게 급변하

는 시대,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두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영업과 마케팅의 조화가 필수가 된 지금, 회사의 문화, 업무 절차, 리더십, 기술에 관한 모든 전략과 일치하는 영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원만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두 분야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현실적으로 짚어주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한편 리더십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업무 과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준다. 또 영업과 마케팅 프로그램의 협력을 위해 변화를 꾀해야 할 업무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짚어내고, 다양한 조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도 설명한다.

소비자가 예전처럼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찾아낼 수 있는 시대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마케팅,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혼란스러운 시장 변화에 비틀대지 않고 회사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 동력인 영업과 마케팅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잡아가는 요령을 배울 수 있다.

<목차>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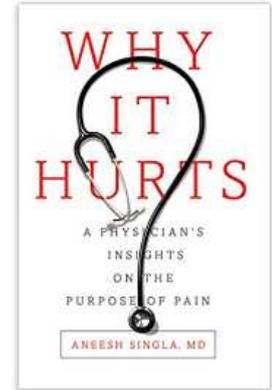
- 1장. 왜 균형이 필요한가?
- 2장. 문화적 걸림돌은 치워버려라
- 3장. 모든 절차에 균형을 심어라
- 4장. 균형 잡힌 조직에는 그에 맞는 리더가 필요하다
- 5장. 균형을 잡아주는 훌륭한 조정장치는 바로 데이터
- 6장. 영업과 마케팅을 넘어선 균형, 정보관리에도 필요하다
- 7장. 균형의 암호 해독
- 8장.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독보적인 개념

<저자 소개>

트레이시 에일러(Tracy Eiler)는 25년간 여러 기술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InsideView'에서 마케팅부 대표를 맡고 있다. 「B2B Marketing Technology」에서 ' 주목해야 할 여성 세일즈 관리자 20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30인'으로 선정되었다.

안드레아 오스틴(Andrea Austin)은 20년 이상 업무 역량 개발과 소비자 관리 분야에서 일했다. 현재는 'InsideView'에서 영업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제목 : WHY IT HURTS?
가제 : 왜 이렇게 아플까?
저자 : Aneesh Singla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5월 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의학, 건강



- * 하버드 대학교 통증 전문가가 설명하는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통증의 역사
- * 기적의 치유법 대신 통증의 진짜 원인과 중요성,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난생 처음으로 벌에 쏘여봤거나,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어 본 사람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그 찌르는 듯한 통증에 화들짝 놀란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상처 입은 부위는 물론이고 그 주변까지, 얼얼하고 따가운 고통이 한참 동안 가시지 않는다. 그 외에도 무수한 상황에서 뼈가 부러지고, 굽히고, 다치는 외상과 내상을 경험하고 그럴 때면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다. “통증은 왜 느끼는 걸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각인가?”

하버드 의과대학의 통증 전문의인 저자는 의사의 관점에서 수 세기 동안 인류가 던진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섰다. 의학적인 통증의 발생 기전과 필요성, 역사와 더불어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진 통증의 모습을 짚어보고, 이 고통스러운 감각을 제대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미국에서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1억 1,600만 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매년 6,35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저자는 10년 이상 이러한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통증이 느껴지자마자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그 감각을 없애고 싶은 욕구에서 한 발 물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아편 유사물질로 이루어진 진통제의 사용량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고, 통증의 특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그러한 흐름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온갖 종류의 통증마다 ‘기적의 치유법’이 있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통증은 우리의 건강, 몸의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인간이 지닌 귀중한 특성인 회복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통증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로운’ 통증과 ‘해로운’ 통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로운 통증은 세상과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효과적인 톨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자는 통증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속 깊은 곳의 문제, 감각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체내의 질병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경고 신호이며, 따라서 무작정 없애기보다 이 미세하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이 신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인 고통,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신체 통증과 심리적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통증의 특성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통증을 없애는 묘안보다 ‘왜’ 그런 고통이 발생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의학서다. 통증의 경험, 그리고 해소하는 방법은 지극히 개개인의 영역이라는 점, 통증이 그저 불쾌하고 불편하니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통증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 통증이란 무엇인가?
2. 뜻밖의 이로운 결과
3. 심리적 통증
4. 문학과 영화에서 묘사되는 통증
5. 새로운 약 없나요
6. 연관통, 복잡하고 까다로운 진단
7. 통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8. 더 이상 편한 날은 없다

<저자 소개>

아니쉬 싱글라(Aneesh Singla)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학 석사를 추가로 취득했다. 의학 학술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사를 역임하고 다양한 방송과 인쇄 매체에 소개됐다. 만성 통증을 최대한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